

(국문번역)

산아조절의 영역들

Horizons of Natural Family Planning

존·빌링스 박사(빌링스법 창시자)

(Dr. John Billings)

30년전 「틴」과 나는 처음으로 자연적 가족계획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기인하여—그중 어떤 것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지만—자연적 가족계획은 잘 진척되어 갔고, 그 결과 리듬법, 체온 조절법과 아주 다른 “배란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 방법을 “빌링스 배란법”이라는 명칭으로 채택했습니다. 확실히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요구에 응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북미,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거의 50개국을 방문했으며 그중 어떤 나라들은 몇번씩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중에—특히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는 중에—부유한 나라들이 자금을 대어 추진시키는 산아조절 계획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들은 처음에 일부에 특정한 나라의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계획한 것인데, 표면상으로는 그들을 돕기를 지향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억제하거나 또는 완전히 제거 시키기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난의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근절로써 추구되고 있는 현대의 전형적 현상입니다. 똑같은 행위로 환자를 살해함으로써 병을 제거한다거나, 어린 아이를 태어나기 전이나 혹은 태어난후 살해하고 있는 의학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년동안 세계가 굶어 죽을 아주 절박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잔인한 선전을 해왔거나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에 의거한 뚜렷

한 논리도 없이, 세계는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러한 논증들은 가정과 국가의 빈곤이 높은 출생률에 의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사실 이 지구의 농업자원은 거의 현재 세계인구의 10배인 400억 인구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 지구의 얼지 않는 땅 면적의 단지 24%만을 사용함으로써 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이상을 세계 식량 생산은 저개발 지역에서조차 인구증가를 상당히 능가해왔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의 잠재능력의 일부만을 개발해도 곡식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높은 수준의 출산률에 변화가 있기 시작한 것은 거의 100년전 일로서, 북미에서는 물론 북서 유럽에서도 시작되고, 이런 변화는 나중에 동부유럽 및 남부유럽에서도 같은 추세의 움직임으로 일게 되었고 일본에서 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공업 국가들은 지난 20년 사이에, 보다 더 대폭적인 출산의 쇠퇴를 체험했습니다. 오스트레리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미국등지에서는 현재 거의 제자리 수준에 겨우 미치는 형편이거나 그 이하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증가율이 제로상태인 나라들은 오스트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동독,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그리고 서독 등입니다. 프랑스는 사회안에서 인구 집단들의 불균형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위험들을 간과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서, 그 결과 대가족들을 유리하게 하는 포괄적인 가족 원조 정책을 최근에 확립했습니다.

최근에 U.N.에 의해 두개의 세계인구회의가 발기되었습니다. 첫번째는 1965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벨그라드에서 열렸고, 두번째는 1974년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열렸습니다. 벨그라드회의에서 모스크바의 K. M. Marlin씨와 비엔나의 Wilhelm Winkler씨는 지구의 잠재식량이 거의 무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arlin씨의 주장에 따르면 농업의 발전으로 1,300억에 달하는 인구를 돌볼 수 있고, 태양 에너지의 사용, 바다의 개발 그리고 화학자원의 조절과 활용으로 수조에 달하는 인구에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Winkler씨는 남미의 경우 그들이 활용해 온 목초지등의 자연자원의 활용도는 실제 잠재능력의 6%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카레스트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 Souvy씨는 인구증가를 제한해서 나라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프랑스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사실이었다면 프랑스는 지금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미 18세기 이후 쪽 인구증가를 제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지금에 와서 그 결과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학자인 Colin Clark씨는 "자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아주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자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말 자체는 인간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인구증가는 분명히 한 나라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히 식량과 다른 농업 생산물을 의미하는 천연자원에 대해 얘기 한다면, 이 두가지가 노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천연자원은 땅과 기후인데 그것들의 요소들은 보존과 복구가 가능하고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자원에 관

해서 불행도 이미 사용된 금속들의 원자가 그대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망각하곤 합니다.

부카레스트 회의에서 자주 표현되었던 견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가들을 통해 추진된 산아조절 계획들이 실제로는 부요한 나라들의 계속적인 번영을 피하는데 이용되고, 그런 나라들이 세계의 넓은 지역을 원자재의 산지로 확보해나감으로써 여타의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일종의 미묘한 국제 침략 전술이라 할 수 있는 이기적 국제전략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일차적 목적은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적 선의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생활과 행복의 파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배려를 훌륭한 정부의 으뜸이자 가장 정당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곤과 영양실조가 과도한 양육(즉 너무 많이나서 기르는 것)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단순히 빈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략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국제 가족계획"과 같은 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중대한 허구성은 합법화된 유산에 의해 뒷받침 되는 피임법이 부요와 부부간의 만족을 항상 증진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인도 인구의 대부분이 생계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 인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식량의 절반만이 이용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발전을 위한 현명한 사회 경제적 계획들은 농업과 수의학의 현대적으로 발달된 지식을 사용하는 식량생산과 튼튼한 2차산업의 발전을 기대케 하는 교육과 국가의 자연적 자원과 국민의 전통을 최대한 활용시킬 수 있는 기술들의 장려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 압도적인 문제들은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섬뜩할 정도로 높은 유아 사망률의 제거와, 어머니들과 어린 아이들의

보다 나은 건강관리의 마련, 사망자들의 50%이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전염성 질병들—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치료할 수 있는 기관지폐염, 위장염,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입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인구에 비해 의사의 비율이 극도로 낮음, 영양실조의 만연 그리고 현대적 오물처리 방법과 깨끗한 물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공중보건 시설들의 결여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 아 조 절

지난세기동안 나타난 출생률의 변화는 이해하기가 항상 그리 쉽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확실히 현대적 피임기술의 출현 이전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개선된 사회적 조건과 사망률의 저하가 항상 국민 출생률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정도의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장려되고 있는 산아제한(가족계획) 계획들이 진실로 인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관대하게 묵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피임법과 불임시술 그리고 유산기술이 육체적으로는 해롭고 도덕적으로는 퇴폐한 영향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킨 중국이나 인도 같은 몇몇 나라들에 있어서 그 정부는 때때로 국민들에 대해 실행한 야만적 행위의 성격에 쫓겨 강력한 조치를 동원하곤 했습니다. 이런 강제조치는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실패할 것이고 인간역사에 그 야만성이 오직 어리석고 헛된 생각에 의해 비롯되는 불성실한 정책으로 기록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피임법, 불임시술, 인공유산을 보급하는 다국적이면서도 수천만달러가 동원되는 사업을 돕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맡은 “쓸모 있는 바보들”의 또 다른 배경에서의 활동을 묵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밑바닥에는 인간성에 대한 특수한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의 본질에는 처음에 어린이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 다음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생명에 대한 경멸심으로 나타나

는 반생명(反生命)주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임심리(정신)는 결국 중증근절과 국가를 파괴시키는 결과로 초래합니다. 이런 철학의 한가지 요소는 육체적 성적 쾌락에 대한 추구를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그 결과 출산력(생식력)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력이 모든 인간유기체의 본질적이고도 가장 가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가난하거나 문맹이거나 동양인이거나 흑인 또는 라틴계인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출산력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즉 풍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그들이 지구의 자원을 소모한다고 분개합니다.—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경멸심과 연관지어집니다.

또한 피임심리(정신)는 성교 그 자체에 대해 타락된 평가를 함으로써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비윤리성을 조장시킵니다. 만일 젊은 사람들이 피임기구를 다 갖추고 있다면, 많은 결혼전 임신과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인공유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얘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릅니다. 미국의 연방기금으로 마련된 “국제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굉장한 실패를 했습니다. 10대 미혼모들의 출산은 1970년 약 19만명에서 1978년 약 24만명으로 증가했고,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유산은 1970년 약 9만명에서 1978년 약 50만명으로 5배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결혼전 임신의 총숫자는 약 30만명에서 약 70만명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만큼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가르치고 권장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동기는 선남선녀로 하여금 그들의 자의 품위를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격적 성숙을 피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을 증진시켜 인간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과 존경과 관용에 근거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확립입니다. 이런 가정생활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그들의 울

바른 위치를 취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또 기꺼이 일하도록 준비된 성숙한 시민들로 성장하도록 보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두려움 없이 지적인 성장을 체험하고 그들의 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한계성과 또한 육체적, 지적 불완전성 때문에 강요되는 한계성을 뛰어넘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동안 산아조절의 문제들은 그 자체가 개개 부부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되는 대신에 지역적 문제로 또는 더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고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개개 부부들이 가질 수 있는 산아조절의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지식을 그들 각자에게 줄 수 있다면 인구 통제학적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치더라도 쉽게 없어질 것입니다.

1968년 U.N.기구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의 선언은 사람들이 그들 가정의 크기와 공간을 자유롭게 책임 있게 결정할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언은 1974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세계 인구회의”와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여성의 해”를 위한 UN의 회의에서 재차 단언되었고 198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여성을 위한 U.N.의 10년간”이라는 세계회의에서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자연적 출산 조절방법은, 확실하고 무해하며, 간편하고,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필요할 때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많은 경우에 불임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사용은 결혼을 안전과 행복 속에서 확립케 해 줄 덕행들을 발전시켜 줍니다.

인구 통계 학자들과 가족계획 조달자들은 Pearl방식의 반쪽 세계에 살면서 또한 “사용—유효함, 사용자—실패자, 기획되지 않은 임신들” 등의 대부분 무의미한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연적 가족계획이 해로움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의 사용을 어긴 부부들에게 속되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자연적인 가족계획의 사용으로 되돌아 간다는 사실을 끝내 인식하

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출산력(생식력)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욕과 타협하게 하고 생명의 선물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구통계 학자들은 산아조절의 문제에 있어 본질적 통계치는 한 특정한 사회에 산아조절을 도입함에 따르는 방법 사용의 보급의 통계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는 우선 첫째로 방법의 수용성과 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부부들의 계속하려는 자발성을 의미하는 지속률을 결합시킵니다. 여러나라에서 —예를들면 방글라데쉬—행해진 연구는 산아조절계획에서 추진된 현재의 기술로써는 장기간에 걸쳐 10%미만의 사용 보급이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969년부터 10년에 걸쳐 약 1억 6천만 달러의 경비를 들인후에도 출생률은 마찬가지였고 사회 안에서의 산아제한의 여러 기술들의 사용 보급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전과 같은 수만큼의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 오히려 처음보다도 더 가난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통계학이 관심을 두는 목표에 관해 볼 때, 산아제한하는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수락자”들이 되며, 이 수락자들 가족들의 산아제한이 곧 통계학에서 말하는 “성공”이 됩니다.

한 나라의 건강과 생명력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젊은이들로부터 나오고 그들의 출생률을 너무 격심하게 제한하지 않는 나라들이 가장 번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에게 산아조절은 실질적인 문제들이며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출산력(생식력)자체를 침해하지 않고 성행위를 왜곡하지 않으며 인간생명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 산아조절의 성취와 더불어, 어린아이는 관심의 핵심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산아조절 방법은 자연적 생물학적 질서에 근거를 둔 것이며 그 방법들은 어떤 현대적 피임방법이나 불임기술의

기술 못지 않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제의 시험과 실험연구로써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방법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의사교환과 이해와 관대함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자연적 방법들은 결혼의 안정과 행복이 달

려 있는 바로 그 덕행들의 발전을 촉진시켜 줍니다. 부부들이 자신들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 방법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가정생활을 새롭게 확립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